

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샤스타 컬리지의 위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아주 외진 레딩이란 지역에 위치해있고, 레딩 안에서도 꽤나 구석진 곳에 위치했다. 하지만 차를 조금만 타고나가면 마켓과 음식점들이 위치해있고, 오히려 시내에 위치해있지 않아 좋은 점도 많았던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고 캠퍼스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커먼스에 위치한 키친에는 충분히 놀거리도 많았고 음식들도 준비해주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해먹을 수 있어 나쁜 점 없이 좋았던 것 같다. 기숙사 자체도 깨끗하고 건물에 프로그램 학생들만 있다는 점도 좋았다. 3주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만의 감각적인 문화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아 아쉬웠지만 미국 친구들과 미국의 음식,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누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다.
수업	샤스타 컬리지의 위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아주 외진 레딩이란 지역에 위치해있고, 레딩 안에서도 꽤나 구석진 곳에 위치했다. 하지만 차를 조금만 타고나가면 마켓과 음식점들이 위치해있고, 오히려 시내에 위치해있지 않아 좋은 점도 많았던 것 같다.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고 캠퍼스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커먼스에 위치한 키친에는 충분히 놀거리도 많았고 음식들도 준비해주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해먹을 수 있어 나쁜 점 없이 좋았던 것 같다. 기숙사 자체도 깨끗하고 건물에 프로그램 학생들만 있다는 점도 좋았다. 3주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만의 감각적인 문화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아 아쉬웠지만 미국 친구들과 미국의 음식,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누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다.
필드트립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엔젤레스처럼 관광지가 아닌 레딩이라는 낯선 곳의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던 흔치않은 좋은 경험이었다. 프로그램 담당자이신 타일러가 아침마다 필요하거나 들고오면 안되는 물품들을 미리 카톡으로 공지해줘서 준비하기도 좋았고, 유명한 관광지도 물론 좋지만 액티비티한 하이킹이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도 좋아하는 나에게는 굉장히 만족한 필드트립이었다. 무엇보다 버스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좋았고 박물관이나 입장료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들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고 좋았던 점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일정이 단 하루였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다. 피어39에서 3시간, 케이블카를 타고 간 샌프란의 중심가에서 단 1시간이란 시간은 그 곳을 느끼기에도, 쇼핑을 하기에도 정말정말 충

	분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저녁도 먹어야하는 일정에 4시?5시? 부터 샌프란에서 출발했던 일정이 더욱 아쉽게 만들었던 것 같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40도가 웃도는 뜨거운 햇볕을 가진 날씨라 가기 전부터 굉장히 걱정했고 실제로 레딩에 도착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살갓이 따끔따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습도가 거의 없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거의 나지 않고 그늘에만 가도 시원하다. 또한 그런 날씨 때문에 모든 실내가 에어컨을 뽕뽕하게 켜놓는다. 긴바지를 입어도 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실내에 오래 있는 시간이 많아 춥다고 느낄 때가 더 많으며 우리는 냉방병, 감기기운 때문에 더 고생한 것 같다. 수업을 갈 때는 겹옷을 꼭 챙겨야 했고, 수업 중간에 너무 추운 탓에 밖에 나가 햇빛을 쬔고 있기도 했다. 반바지보다 긴바지를 많이 챙기고 긴팔 겹옷을 꼭 챙기는 걸 추천한다.
안전	미국에는 홈리스와 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딩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홈리스는 거의 볼 수 없었고, 학교 안에는 세큐리티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세큐리티가 우리를 외부인으로 보고 말을 걸까 봐 더 무서웠던 것 같다. 학교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 친구들의 자가용을 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항상 미국친구들이 같이 있어주어 위험할 상황은 전혀 없었다.
숙소	기숙사는 너무 깨끗하고 좋았다. 건물 자체에 우리 프로그램 학생들만 있는 것도 좋았고 시설이며 방의 크기도 넓고 좋았다. 바로 이어진 건물에 커먼스라는 공간에는 키친이며 휴식공간, 포켓볼, 탁구대, 게임기 등이 구비되어있었고 굉장히 자유로웠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과 방을 같이 쓰는 것은 약간의 의견차이가 생겨 불편했다. 미국친구들은 에어컨의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잠에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온도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추워 잠에서 깨기 일수였다. 그런 사소한 불편이 생기는 것 보다 각 나라의 학생끼리 쓰는 것이 오히려 좋았을 것 같다. 물론 덕분에 룸메들끼리 더욱 돈독해진 방도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아니었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나는 주로 점심은 학교식당을 이용했으며 아침은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첫 주 이 외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저녁은 학교식당을 이용하기도 하며 외부식당을 이용하기도 했고 키친에서 직접 해먹기도 하였다. 학교 식당은 주로 짜고 달아 든든하게 먹기에는 조금 힘들었다. 과일과 샐러드도 항상 같은 종류와 같은 드레싱이라 많이 질렸었다. 키친에 음식을

	채워주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했던 점이 어렵지 않게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좋은 점이었던 것 같다.
교통	미국의 대중교통이 궁금하여 버스와 우버를 타보고 싶었지만 크게 이용할 일이 없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항상 미국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가용으로 운전을 해주어 불편한 점 없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운전을 해준 친구들에게는 학교에서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교통비	약 160,000	울산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 KTX이용
개인 식비	약 150,000	주말 포함 가끔의 평일 저녁
쇼핑비	약 200,000	개인 구매, 기념품 등
기타 (놀거리)	약 50,000	자유시간 이용하여 볼링, 골프 등
합계	약 59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반바지보다 긴바지를 많이 챙겨야한다.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지만 밖에 있는 시간보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고, 미국친구들과 같은 방을 쓴다면 잠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에어컨을 우리 마음대로 온도를 낮추기도 쉽지 않고 낮추어 달라해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냉방병을 예방하기에도 긴팔의 옷을 많이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비염이 심하여서 약간의 온도변화에도 쉽게 재채기를 하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끊임없이 콧물이 나왔다. 가지고 간 비상약도 유용하게 사용했다. 여행보다는 수업과 필드트립 위주의 프로그램이라 차려입기 보다는 편안한 옷을 더 자주 입고 선호하게 되었던 것 같다. 편한 옷도 여유있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옷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했던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보다는 미국 친구들을 사귀고 미국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접하고 싶었던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 특히 그런 부분에서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이었다. 샌프란시스코같은 미국의 변화가
를 많이 느끼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의 구석구석을 느낄 수 있
었던 것이 좋았다. 항상 와닿지 못했던 영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가진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 있었다. 3주동안 영어가 급진적으로 향상되었다
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국친구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앞으로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재미있
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먼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는 자
신감이 생겼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미국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
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샌프란시스코로 필드트립을 간 날, 골든 게이트 브릿지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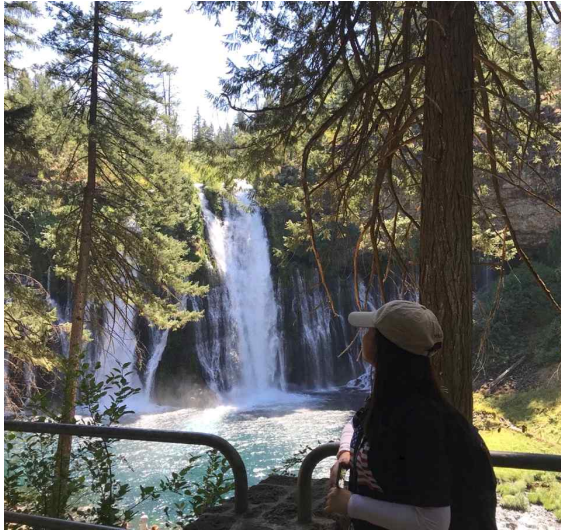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로 필드트립을 간 날, 케이블 카를 타고 찰칵.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다.



샤스타 댐으로 필드트립을 간 날, 3주 내내 운전하느라 고생한 가장 친해진 존과 함께.



샤스타 칼리지 헬스 사이언스 빌딩으로 필드트립을 간 날, 3주 중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경험을 한 날.



Burney falls로 필드트립을 간 날,
아름답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가진
폭포 앞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겸 수료날, 3주 내내
함께 해준 존과 에릭. 다같이 수료증 들고
찰칵.